

연금 시장 리뷰 **49**호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성과의 시사점

퇴직연금

- 동향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시행
- 이슈 : 중국 기업연금(企業年金)제도에 대한 이해
- 퇴직연금통계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국내 동향: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아래로 하락

- 지난 11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22.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하면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에 진입
 -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농축산물과 수입재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늦춰지면서 8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4% 아래로 하락함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3/4분기 국내 GDP실질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4%, 전기대비 0.7% 상승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의 2011년 4%대의 GDP 성장률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임

○ 금융동향: 그리스 국민투표 철회 등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임

-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긴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철회하고 국회에서 재신임을 얻으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감
 - 그리스 문제의 해결 국면에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지속으로 채권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월 평균 3.47%에서 11월 4일 현재 3.43%로 소폭 하락
 - 그리스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으로 10월 평균 1150.3원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도 11월 4일 1,114.0로 떨어져 안정세를 보임
 - 한편, 코스피 지수도 10월말 1,909p에서 11월 4일 현재 1928.4p로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1/4	2/4	2/4	10월	11월4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0.3	6.2	4.2	3.4	3.4	-	-
	산업생산(%)	-0.1	16.2	10.6	7.2	5.1	-	-
	소비자물가(%)	2.8	2.9	4.5	4.2	4.8	3.9	-
	실업률(%)	3.6	3.7	4.2	3.4	3.1	-	-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6.1	54.9	71.7	-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4.04	3.72	3.80	3.68	3.60	3.47	3.43
	원/달러(원)	1,276.4	1,156.0	1,119.8	1,083.2	1,085.1	1,150.3	1,114.0
	코스피지수(P)	1,682.8	2,051.0	2,106.7	2,100.7	1,769.6	1,909.0	1,928.4

주: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고,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 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자료임.

□ 이슈 :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성과의 시사점

제 6 차 G2 정상회의가 2011 년 11 월 3~4 일 이틀간 G20 회원국과 5 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², 7 개 국제기구³가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지난 5 월 프랑스 G8 정상회의가 아랍의 민주화 등 정치적 현안에 집중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세계 최상위 협의체로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유로존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졌었다.

<G20 정상회의 경과>

일 시	장 소	주요의제
1차(2008.11)	미국 워싱턴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과 해소 방안 공조
2차(2009.4)	영국 런던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보호주의 저지
3차(2009.9)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연례화, 국제금융규제 개혁 외
4차(2010.6)	캐나다 토론토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구축 외
5차(2010.11)	한국 서울	거시경제정책 공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개발이슈
6차(2011.11)	프랑스 칸느	유럽 재정위기 해소, 글로벌 정책공조 및 IMF 개혁 외

G20 정상들은 정상선언문(Declaration)과 칸느 액션플랜(The Cannes Action Plan For Growth and Jobs), 의제별 합의 사항(Building block) 및 부속서(Annex)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의제별로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G20 회원국들은 장단기 정책공조방향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신흥국들은 인플레이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을 완화하고 경기 복원력은 높이는 거시정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신흥 국가들은 국내 소비 진작,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시키는 채권시장 발전방안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자본이동관리 원칙은 IMF가 기축통화국들의 자본 유출을 감시하고 신흥국들도 '자본통제'를 한시적으로나마 적용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세계은행과 IMF의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통화 기반의 채권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되었다. 한편, 글로벌 위기 방어를 위한 IMF 자원 확충이 합의되었고 시스템 위기사 위기 전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²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는 스페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가 초청됨

³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가 참석

단기유동성 지원 방안도 신설되었다. 금융기관 개혁에서는 대마불사 우려가 있는 글로벌 주요 대형 금융기관에게 위험가중자산 대비 1~2.5% 보통주 자본적립, 효과적인 정리체계 수립과 감독 강화방안을 망라한 종합 정책체계에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G20의 금융규제 방안을 총괄하는 FSB의 기능을 확충하고 바젤3도 2013부터 2019년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도입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장국이었던 프랑스가 제안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실물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선 및 감독 방향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G20 정상회의가 중장기적 세계 경제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최대 이슈였던 유로존 지원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도출되지 못했고 기대를 모았던 IMF재원 확충도 원칙적 합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유로존 문제 등 지속·반복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G20 정상회의가 2012년 6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만큼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여 해법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해 본다.

<프랑스 G20정상회의의 성과>

의 제	주요내용
거시경제정책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 지지 -장단기 정책공조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선진국 재정건전화 추진, 유로존은 종합적 패키지 이행 · 신흥국은 복원력있는 거시정책 수행, 특히 경상수지 흑자국은 내수 확대 · 시장결정적 환율제로의 이행과 환율유연성 강화 노력
국제통화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채권시장 발전방안에 합의 -IMF의 위기예방 및 유동성지원제도 신설 -IMF 재원 확충에 동의, 재원 마련방안은 2012년 2월에 재논의
금융규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G-SIFIs에 의한 리스크 축소를 위한 종합 정책체계 마련 D-SIFIs(Domestic-) 규제 방안 마련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물 및 파생상품시장 개선작업과 규제 방안 마련 ·국제석유통계 및 국제가스통계 구축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에서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을 규제·감독
개발 및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재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

자료: 프랑스 G20 정상회의 웹사이트 참조.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 동향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 시행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요약)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시장은 매년 2배씩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열 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수급권보호, 퇴직연금제도 정착, 금융시장 발전 등 제도도입 취지에 미흡

- 이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하여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

○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집중 투자한도 도입

- (현행)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실제 영업시 자사 원금 보장 상품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 경쟁 촉발원인으로 작용
- (개선)신탁계약의 자산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비율을 70%로 설정

○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강화

①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 개선

- (현행)운용수익률을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 산출하고 있어 공시정보가 불충분
- (개선)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을 구분 공시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최저 수익률등을 추가 공시

② 공시주기 단축

- (현행)공시주기를 매년말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수익률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곤란
- (개선)공시주기를 단축*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 제고
 -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매년 → 매분기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 매년 → 매월

③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 공시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과 변경 사항을 공시토록 하여 사용자(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④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정정 공시 강화

- 사업자가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한 사실을 자기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 영업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 (특별이익 제공행위 명확화) 「근퇴법」 제 20 조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

< 주요 특별이익 제공 형태 >

분류	주요 내용
1. 금품의 제공	상품권, 물품,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2.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재화구매 등
3. 가입자 비용 대신 부담	동호회 행사비용 대신 부담 등

- 다만, 사용자 및 가입자별 3 만원 이하인 경우와 퇴직연금 운용*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 (계약체결 강요행위 명확화) 「 근퇴법 」 제20조의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다른 거래*의 중단, 거래연장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 박탈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규정

□ 이슈 : 중국 기업연금(企業年金)제도에 대한 이해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 계획경제 시기에는 전면적인 사회복지를 지향하였다. 국가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던 국유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노후, 의료, 주택 및 교육 등에 대하여 평생토록 보장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에 상응하는 소유제 개혁과 기업경영 효율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개혁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 사회주의계획경제하에서 시행되었던 전면적인 복지제도도 개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공적연금제도를 과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부과방식에서 정부, 기업 및 개인 3 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이외에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업연금(企業年金)”에 가입하여 공적연금을 보완토록 하였다.

중국의 기업연금제도는 1991 년에 처음 명문화된 후, 공적연금에 대한 보완적인 연금제도로서 그 면모를 차츰 갖추어 나갔다. 2000 년대 들어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중국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업연금에서도 기금의 관리와 투자 운용 등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 년간 기업연금 가입기업 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기금규모 또한 13 배나 증가하였다.

중국의 기업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 급여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기금은 기업의 납부금, 근로자 개인납부금 및 투자운용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기금투자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전자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하여 적정한 투자 비율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대부분이 은행예금 및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어 극히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금의 관리는 위탁자(기업, 근로자), 수탁자(기업연금이사회 등), 투자관리자(펀드회사 및 증권회사 등), 수탁관리자(상업은행), 계좌관리자(보험회사 등) 등이 투자운용, 자산보관 및 계좌 개설 등 각기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업방식을 채택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기업연금제도는 20 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 왔으나 다른 사회경제 분야의 개혁에 비해 그 발전 정도가 매우 미미하였다. 2008 년 기준 중국 공적연금 자산의 GDP 비중은 3.2%이며, 기업연금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OECD 국가의 기업연금 GDP 비중은 78.9%, 공적연금은 14.5%로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연금의 노후보장에서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또한 아직 중국은 기업연금 가입기업 대부분이 대형국유기업이며, 높은 연금 납입부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민영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금번 12 차 5 개년계획(2011~2015 년)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둘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기업연금도 가입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기금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I. 중국 기업연금(企業年金) 제도 설립 배경

○ 중국 사회보험제도 개혁에 따른 다층차 노후보장 모델 도입

-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은 근로자에 대하여 평생고용, 노후, 의료, 주택, 교육 등 “iron rice bowl”로 대변되는 전면적인 복지보장을 제공하였으나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부담 가중에 따른 국영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공적연금제도에 있어 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에서 정부-기업-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통합기금과 개인구좌로 이원화된 부분적립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진행
- 아울러 공적연금 이외에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기업연금(企業年金)”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를 대비토록 함
 - 중국의 노후보장제도의 구조는 World Bank 의 다층차 모델(multi pillar model)에 기반한 5 층차(Pillar 0 ~ Pillar 4)의 연금 제도를 따르고 있음
 - 가장 하층부에는 빈곤계층을 위한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그 위에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 성격의 양로보험제도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연금이 있고 마지막으로 민영보험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표 1] 중국 노후보장제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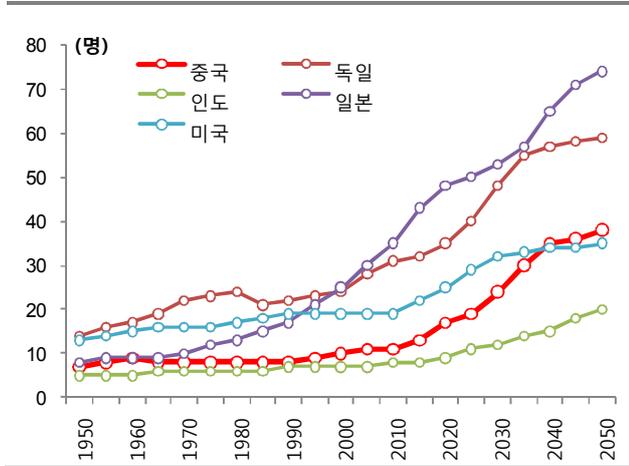
Pillar 0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수입원이 없는, 혹은 노동능력이 있어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상실한 빈곤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Pillar 1a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중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도시 노동자 중 퇴직자는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과 근무연한 등에 근거하여 산출된 연금 급여를 지급받음. 보험급여를 지불하고 남는 부분은 성(省) 정부의 사회보장 담당 부문에서 관리
Pillar 1b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본인의 월 임금에서 8%를 개인 구좌에 적립하며 퇴직 후 수취. 이 또한 성(省) 정부의 사회보장 담당 부문에서 관리
Pillar 2	‘기업연금(企業年金)’제도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가입. 기업연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신탁회사 혹은 자산운용사에게 위탁하여 운용
Pillar 3	‘양로보험’ 및 ‘기업연금’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회사 연금 및 보험상품
Pillar 4	부모에 대한 요양 및 자녀에 대한 주택 구입 보조 등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간의 보살핌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 고갈 우려로 기업연금 도입을 통한 재정 리스크 분산 필요

- 중국의 15~64 세 생산가능 인구 100 명에 대하여 65 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는 현재 11 명 정도로 아직까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향후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2050년에는 38 명으로 상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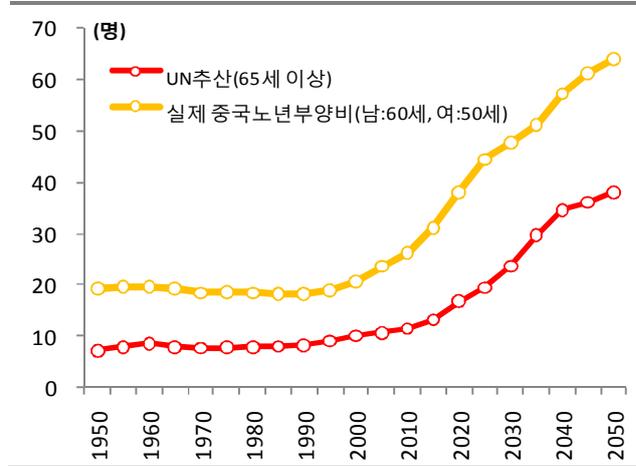
- 특히 중국의 남녀 노동자의 퇴직 연령이 각각 60 세와 50 세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노년부양비는 2050 년에 64 명으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

[그림1] 국가별 노년부양비 상승 현황 및 예측



자료 : UN 인구국

[그림2] 중국의 실제 노년부양비 상승 예측



자료 : UN 인구국

II. 중국 기업연금제도 형성 과정 및 현황

○ 중국 기업연금제도 형성 과정

- 1991 년에 중국 국무원은 “기업 근로자의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개혁 결정”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보충양로보험제도 실시를 규정
- 1995 년 “국무원의 기업 근로자 양로보험제도 개혁 통지”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공적연금에 이미 가입하였다는 전제하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협상을 통해 기업연금 가입 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
 - 동년 12 월, 노동사회보장부(現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업 기업연금의 실시 조건, 자금조달, 수탁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정하고, 확정기여형 신탁방식을 채택
- 2000 년에는 “도시 지역 사회보장체계 보완 시행 방안”에서 기업 및 근로자의 기업연금 납입 비율 등을 제정
- 2004 년에는 “기업연금시행조례” 발표를 통해 기업연금은 완전적립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기업연금기금을 관리함을 규정
 - 아울러 기업연금기금은 정부규정에 따라 금융시장에 투자 운용할 수 있으며, 기업연금의 수탁자는 자격요건이 부합하는 상업은행이나 전문신탁회사를 선정할 것을 요구
- 이후 “기업연금의 펀드 및 증권 투자에 대한 통지” 등 기업연금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발표하며 기업연금의 운영 및 투자 운용 체계를 확립

○ 중국 기업연금 가입 및 기금 현황

- 2000년대 들어 기업연금 가입기업 및 기금규모가 급격히 증가
 - 2000년에는 16,000개의 기업만이 기업연금을 가입하였고, 기금규모는 191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이르러서는 33,200개로 가입 기업수가 배증하였고 기금 규모도 2,809억 위안으로 급속히 증가
 - 지난 10년간 기금 누적 총액은 1,370%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33.27%로 중국의 연간 9~10%의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

[표2] 중국 기업연금 가입자 및 기금 규모

	기업연금 가입 기업(만개)	기업연금 가입 직원(만명)	적립 기금 규모(억위안)	공적연금 가입자(만명)	기업연금/공적연금 가입자(%)
2000년	1.6	560	191	13,617	4.1
2006년	2.4	964	910	18,766	5.1
2007년	3.2	929	1,519	20,136	4.6
2008년	3.3	1,038	1,911	21,891	4.7
2009년	3.4	1,179	2,533	23,550	5.0
2010년	3.7	1,335	2,809	25,707	5.2

자료: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Ⅲ. 중국 기업연금의 기금 조달 및 관리

○ 중국 기업연금 기금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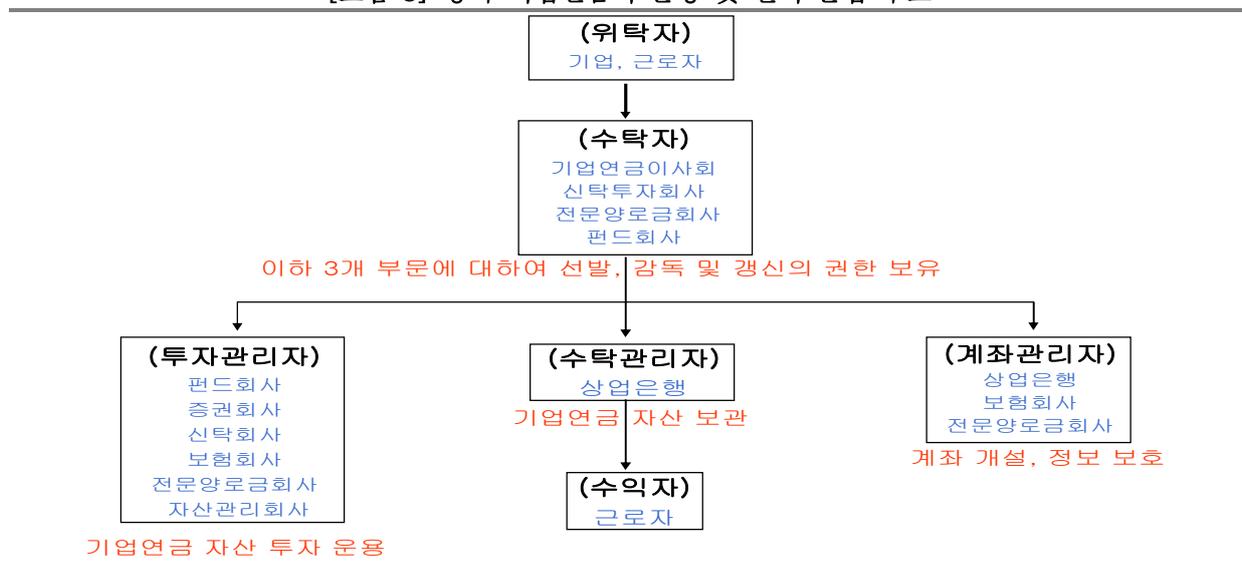
- 중국 기업연금제도를 연금급여 지급방식으로 보면 확정기여형(DC)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연금관리를 하며, 연금적립금은 기존의 부과방식(Pay-as-you-go)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기업연금 기금은 ①기업 납부금 ②근로자 개인 납부금 ③기금 투자운영 수익으로 구성
 - 기업납입부분은 규정된 비율의 금액을 근로자개인계좌에 입금하고, 근로자납입부분은 전액 근로자개인계좌에 입금되며, 기업연금기금운용수익은 비율에 따라 개인계좌에 입금
 - 기업납부금은 해당 기업의 전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20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업과 근로자 개인 납부 합계액은 해당 기업의 전년도 근로자 월급 총액의 1/6 이내에서 결정

○ 중국 기업연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2004년 "기업연금 기금관리 시행 조례"에서 기업연금 기금 투자에 대한 금융상품 종류와 비율을 규정
 - 연금기금의 순자산 중에 당좌예금, 중앙은행 통화안정증권, 단기 채권 등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과 머니마켓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은행정기예금, 국채 등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과 채권에 대한 투자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은 30% 이하로 제한
- 그러나, 실제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업연금 적립 기금의 80%는 은행예금 및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어 기금 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짐
- 2005 년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기업연금의 시장화 운영을 표방하며 입찰공고를 통해 은행, 펀드회사, 보험회사 등 37 개 금융회사를 제 1 차 기업연금 관리기관으로 선정
 - 아울러 OECD 기업연금관리규칙을 참조하여 “기업연금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인, 수탁인, 투자관리인, 수탁관리인, 계좌관리인의 책임 및 업무 범위를 규정
- 기업연금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위탁자, 수탁자, 투자관리자, 수탁관리자, 계좌관리자 등으로 구성하여 분업방식을 채택
 - 수탁자는 기업대표와 직원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업연금이사회나 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탁투자회사 등의 금융회사를 지칭하며, 투자관리자, 수탁관리자 및 계좌관리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감독하고, 기금의 투자전략을 수립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연금납입금을 수납하고, 수익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역할 담당
 - 수탁관리자는 수탁자의 위탁을 받아 기금을 보관하는 상업은행을 말하며, 기금 보관, 기업연금 명의의 자금계정과 증권계정 개설 및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관리자에게 기금을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
 - 투자관리자는 수탁자의 위탁을 받아 기금을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수탁관리자와 함께 기금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기금의 투자 리스크 준비금을 적립
 - 계좌관리자는 기업계정과 개인계정을 개설하고, 기업주와 근로자가 각출한 기금금액과 투자 수익을 기록하며, 기금 계정 금액의 변화 상황을 확인하여 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역할 담당

[그림 3] 중국 기업연금의 운영 및 관리 분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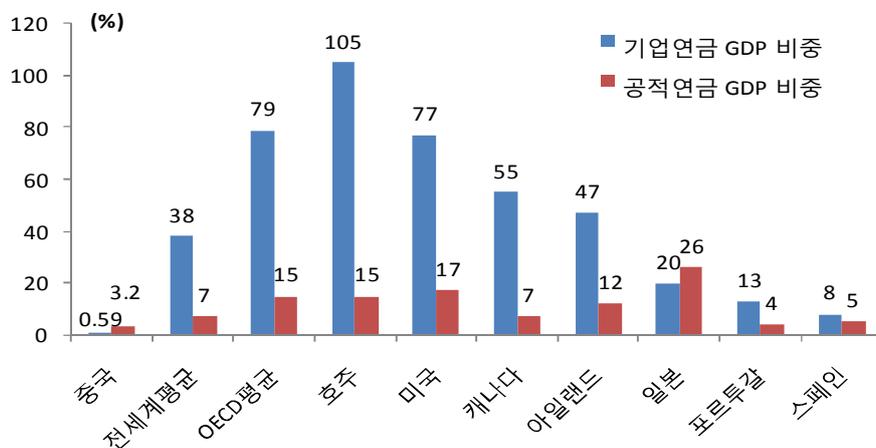


IV. 중국 기업연금제도의 한계

○ 노후보장 체계에서 기업연금의 비중 및 역할이 매우 낮음

- 2008 년 전세계 기업연금 자산 총액은 29 조 달러로 전세계 GDP 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5.4 조 달러로 전세계 GDP 의 7%를 차지
- 이 중 OECD 국가들의 기업연금의 GDP 비중은 78.9%이고 공적연금의 GDP 비중은 14.5%로 중국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8 년 기준 중국 공적연금 자산의 GDP 비중은 3.2%이며, 기업연금은 0.6%에 불과

[그림 4] 중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연금과 공적연금의 GDP 비중(2008년)



자료 : "중국기업연금시장보고", 中國養老金網 (www.cnpension.net)

- 중국의 공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연평균 연금지급 금액/연평균 월급)도 미미한 수준
 -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0%, 30%, 10% 정도
 - 과거 80% 이상이었던 중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는 60%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노후보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이에 반해 중국 기업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에 불과하여 이러한 공적 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정부 재정 및 개인들의 노후보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

○ 가입기업의 국유기업 편중 및 기업의 납입부담 가중

-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연금 가입비율이 전체 가입기업 중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민영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비율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행 중국 공적연금제도에서는 기업이 근로자 총 임금액의 20%에서 최대 25%를 납입(선진국 10% 이하)하고 있어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추가로 기업연금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상황

○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연금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고용주가 조사 대상의 40%에 불과하였고, 이중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고용주가 30%에 불과하며, 조사대상의 1/3 은 기업연금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V. 중국 기업연금 시장 발전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기업연금 가입기업 및 기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

- 중국 정부는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함으로써 가계 저축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다층차의 노후보장제도 완비를 강조
 - 2008 년 중국 가계 저축률은 22.8%로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인 6.1%를 큰 폭으로 상회
 - 중국 가계들이 막대한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사회보장제도 미비에 따른 미래불안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 발생
- 중국 정부는 금번 12 차 5 개년 계획(2011~2015 년)에서 소득격차 축소 및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
 -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 우대 및 가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연금 가입 대상 및 기금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중국 금융시장 개방 심화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므로 전문양로 기금회사 설립 등을 통한 중국 기업연금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

- 중국은 WTO 가입 협정에 의해 이미 2004 년 말에 단체양로보험, 단체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시장을 외국계 보험회사에 개방하였음

이정진, 경제학박사, KB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02-2073-5744, sunbeelee@kbfng.com)

□ 퇴직연금통계

○ 적립금 규모

- 2011년 9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38 조 1,125 억원으로 전월말(37 조 4,649 억원) 대비 6,476 억원 증가*
- 전년말(29조 1,472억원) 대비 30.8%(8조 9,653억원) 증가
- 전년말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1.7%로 낮은 수준을 시현 하였으나, 연말 시점에는 높은 적립금 증가율이 예상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21,584 개소로 전월말(117,327 개소) 대비 3.6% 증가
- 쉐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8.1%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29인	30인~99인	100인~299인	300인~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67,759	33,684	14,759	3,954	658	770	121,584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5.3	20.2	29.5	38.4	48.3	68.8	8.1

자료 :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할 때일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실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사람은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 정보기술(IT)업계의 황제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은 '회사 창립 이후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큰 변화를 읽지 못하고, 탁월한 인재들을 그 변화에 투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실기가 여러 번 있었다. 실기하는 일이 적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미래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조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3~4년만 일찍 인터넷 검색과 광고시장의 중요성을 간파했다면 (구글을) 역전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못내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평가 절하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얘기는 맞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에서 배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탁월한 업적들이 바로 그런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회사와 조직이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문화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수 자체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실수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안전한 길만 가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도전정신'을 구호로 외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말로만 외치는 '도전정신'보다 도전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를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실수의 원인을 솔직하게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초보운전자가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다가 실수할까 봐 언제까지나 직진만 한다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현명한 사람은 실수를 통해 준비하는 지혜를 배운다.

- 플루타르코스(Plutarchos)